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음 12월 14일) 제19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는 29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전북 대선공약 1호 추진위해 팔 걷었다

도, 올 첫 중앙부처 활동

송 지사, 농식품부장관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추진 건의

"식품·종자 등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등 전북을 육성해야"

핵심사업 2019년도 예산 반영 요청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반영된 주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 지원과 조속한 예타통과 협조를 위해 올해 첫 중앙부처 활동에 나섰다.

29일 송하진 도지사는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 조속한 예타통과와 사업비 변경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 추진을 집중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익산), 종자,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순창), 첨단농업(새만금 등) 5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전북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국가기관의 전북 입주를 통한 국내 최대 R&D 인프라 기반 구축 상황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 등의 연계 방안,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의 12개 핵심사업중 농식품부 소관 10개에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직접관리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공모사업 선정과 2019년도 예산 우선반영(6개사업, 149억원)을 건의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농진청, 한식연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 TF(5개분과 40명)를 구성 운영하고 농생명 수도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등을 발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 주재의 '노정 정책현안 조정회의'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시아 농생명 허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농생명 연구기관 등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논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지역 농업에 폭넓은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재부 심의관도 면담하여 예타중인 2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통과와 원할한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10돌 한걸음 더 시민속으로

전성환 이사장 "고객중심 등 발판으로 시민 편의 · 고객 가치 창출할 것"

전주시설공단이 29일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공단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전성환 이사장(사진)은 "지난 10년 간 공단은 시설 수탁사업의 차질없는 인수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치중했다면 이제는 '고객중심, 열린혁신, 안전·안심, 정도경영, 상생·공헌'을 발판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덕진·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을 대상으로 고객중심 편의 공간을 조성해 휴식·소통·문화가 있는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데 주력한다.

또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설장별 고객 대상 '경영계획 설명회'와 '현장 고객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시키고자 '시민창안 상상발전소'와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

이어,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교육·훈련을 하고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안전 감찰단'을 연 2회 운영한다.

아울러 자체감사 시스템, 내부신고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접점 서비스 근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근무복 개선, 고충처리 상담소를 운영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화를 선도했고 나아가 올해에는 운영직에 대한 승급체계를 마련, 공단 내 차별을 해소, 정규직 전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아이들의 스포츠 여가활동 기회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채규남 기자

**제4회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관계로 1월 31일·2월 1일자 신문 쉽니다.

社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 주 매 일